

설 차례상 비용...전통시장 30만원·대형마트 40만원

물가정보 전망...4인기준 지난해보다 마트 7.2%·전통시장 6.7% 상승
이상기후에 과일 58%·채소 32% 급등...수산물·약과·나물 등은 비슷

올해 설 명절 차례상 비용이 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년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와 과일 생육 부진으로 공급이 떨어지면서 폭등한 영향과 무관하지 않지만 정부가 그동안 물가 안정을 내세워 할당관세 등으로 수입한 농수산물에 관세 면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12일 전문가조사 기관 한국물가정보가 발표한 '2025년 설 차례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는 4인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30만2500원,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40만951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7%, 7.2% 올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35.4% 상차림비가 더 비쌀 것으로 전망됐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 방안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수치를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역시 과일류와 채소류 가격 상승이 전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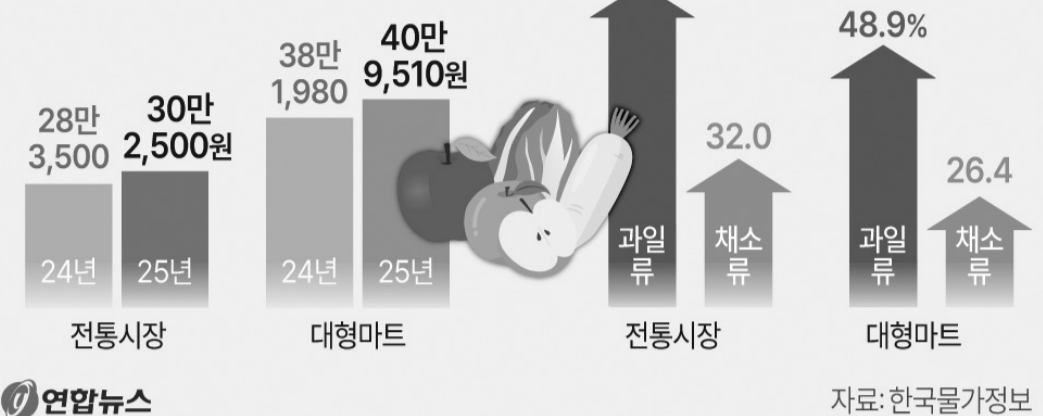
인 설 차례상 차림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설 명절 당시 전년 폭우 등 이상기후로 사과와 배를 비롯한 주요 설 성수품 가격이 뛰었던 것과 같은 이유다. 지난해 여름철 이례적인 폭우와 9월 중순까지 지속된 폭염 등으로 사과와 배 등 과일부터 배추 등 엽채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선 전통시장 장보기 기준으로 과일류는 전년에 견줘 57.9%, 채소류는 32.0% 가격이 상승했다. 이 밖에 견과류(-7.1%), 기타(-1.1%) 등은 가격이 내렸고, 나물류, 축산물, 수산물 등은 가격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전통시장 기준 과일류에서는 배(신고·3개) 가격이 1년새 1만35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2배 이상 가장 많이 뛰었다. 같은 기간 사과(부사·3개)는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2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설 차례상비용 전망

4인가족기준
1월 10일 기준, 9일 발표된 '설명절대책' 반영 전 조사로 실제와 차이 있을 수 있음



연말뉴스

채소류에서는 무(1개)가 4000원으로 전년(2000원) 대비 2배 올랐고, 배추(1포기)는 4000원에서 7000원으로 75% 뛰었다. 한국물가정보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폭염이 장

기화된 데다, 집중호우로 인해 사과와 배 등 과일류 성수품이 전반적으로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상품성도 저하됐다"며 "배추와 무 역시 이상기후 영향으로, 지난해 여름 생육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결과"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장보기 기준으로도 과일류와 채소류 가격은 전년보다 각각 48.9%, 26.4% 올랐다.

배(신고·3개)는 대형마트에서 지난 8월 기준 3만4960원으로 전년(1만7970원)보다 94.6% 올랐고, 사과(부사·3개)는 7.4% 오른 2만1240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대형마트에서는 나물류(15.5%), 수산물(4.9%) 등이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는 최근 '2025 경제정책 방향'에서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원을 투입하고, 농축수산물에 최대 반값 할인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계에서도 가격이 오른 배추, 무, 사과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할인 외에도 자체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 장보기 가격은 전망치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

정부와 유통업체 등의 할인을 모두 반영한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오는 15일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오는 20일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쌀값·과일·채소 수급 문제 없나...KREI '농업전망 2025' 개최

16일 농업·농촌 미래 예측

올해 쌀값은 어떻게 될까. 이상기후에 국내산 과일·채소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오는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한국 농업·농촌 변화를 준비한다'를 주제로 '농업전망 2025' 대회를 개최한다. 국내 농수산업의 전망과 핵심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농업전망 대회는 매년 정부와 지자체 농정 담당자, 농업인, 산업계, 학계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해의 농정을 전망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농업 분야 행사로, 올해로 28회째다.

이번 대회는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미래 ▲2025년 농정 이슈 ▲산업별 수급 전망과 현안을 주제로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연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이 'AI시대 문명사 대전환: 농업혁신의 가능성'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김용렬 KREI 농업관측센터장이 '2025년 농업 및 농가 경제 동향과 전망'을, 김상호 KREI 동향분석실장은 '2025년 농정이슈'를 발표한다.

2부는 '2025년 농정이슈'를 주제로, '시장대응 강화', '농업구조 전환', '농촌과 삶' 등 3개 분야로 나눠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3부는 '산업별 수급 전망과 현안'에 대해 '국내 곡물', '국제곡물', '축산', '과일·과채', '채소' 등 5개 분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당일 현장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에서 실시간 생중계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전망 홈페이지(aglook.kr) 또는 농업전망.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두봉 KREI 원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농업·농촌의 농어촌의 비전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농협전남본부(본부장 이광일)는 오는 20일까지 '2025년 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식품안전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면서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 식품안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농어촌공사 "탄소중립 선도·디지털 농업경쟁력 강화 집중"

전남본부,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성과 공유·중점 추진 계획 발표 등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전남본부)가 지난 10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지사 주요 합동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속한 현장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각 지사별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남본부 18개 지사 지사장들이 참석했다.

각 지사장은 회의에서 지사별로 지난해 주요 성과 및 업무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을 공유하고, 이

를 토대로 올해 경영에 대한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올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방침인 '사람 중심 경영 확산', '경영혁신 마인드 셋', '핵심기능 역할 제고', '미래대응 역량 강화' 등 현장 실천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본부는 올해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문화 확산 ▲최상위 청렴·고객만족 실현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마련 ▲전남형 신성장동력 확보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스

마트하고 안전한 물관리 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남본부는 국내 대표 에너지 플랫폼으로서 지역본부만의 고유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재식 전남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농정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변화에 맞춰 농어촌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디지털 농업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우리 지역이 선도적 역할을 맡아, 농어촌이 새로운 가치 창출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양파·마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기간 운영

농관원 전남지원 31일까지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이 오는 31일까지 양파와 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어업경영체 제 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 상 중요사항이 변경될 시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해야 하지만,

기존에는 정보 변경등록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이에 농관원 전남지원은 겨울철 대표 작물인 양파와 마늘부터 주요 농작물별로 파종과 식재 시기 등을 고려해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선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문의 또는 신청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콜센터(1644-8778),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 농관원 사무소 등을 통해 제공한다. /장윤영 기자 zzang@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